# 임택 '3선' 맞서 전·현직 잇단 출사표

## 진선기·홍기월·박미정, 물밑서 분주…노희용·김성환 '저울질'

### 광주 동구청장

임택 박미정 진선기 홍기월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구는 3선에 도전하는 현 구청장에 맞서 전직 구청장, 전·현직 광주시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택 현 동구청장의 3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홍기월·박미정 현 시의원과 진선기 전 시의원이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도 민주당 경선 참여를 검토하며, 추석 이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먼저 임택 청장은 구정을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구에서 구의원부터 광주시의원을 거쳐 구청에 입성한 임 청장은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청장을 맡았던 동구에서 처음으로 '풀뿌리 정치인'이 청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가장 큰 성과는 '낙후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활발한 도시재생과 인구 10만명 회복을 이뤘고,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하는 등 동구만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홍기월 시의원은 내년 동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동구의회 제4대부터 제8대까지 역임한 '5선 의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풀뿌리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동구에서 최다선 의원을 지내면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의정 목표로 두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대변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미정 시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재선인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피고 돌보는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 향상과 대안 마련에 주력해 왔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설계해 이를 전국 최초의 보편복지 모델로 발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북구에서 재선 광주시의원을 지낸 진선기 전 의원은 일찌감치 동구로 지역구를 옮겨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았던 그는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진 전 의원은 고흥 출신으로 전남공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강점은 오랜 지방 의정경험과 강한 추진력이다.

노희용 전 동구청장은 2012년 동구청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동구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등 바닥 다지기에 주력해 오고 있다.

현재 무소속인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출마에 나선다. 정통 행정가로, 지난 2016년 동구청장을 역임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김이강 재선 가도…시의원 도전장

## 김영남·명진 등 '바닥 다지기'…행정가 출신 조승환, 본격 시동

###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김영남 명진 조승환

광주 서구는 현 서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현직 광주시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먼저 현직 프리미엄을 업은 김이강 서구청장이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재선에 나선다.

특히 김 청장은 민선 8기 '착한도시' 브랜드를 내세우며 정책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잇단 구정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서구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골목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주민 중심 민원 시스템 등으로 '행복공동체 서구'를 실현하고 있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지냈으며, 광주시 정무특보와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 왔다.

서대석 전 청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구청장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이강 후보에게 패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에 복당한 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진 광주시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과 광주시의원을 지낸 안성례 여사의 딸인 명 의원은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공동대표로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왔다. 현재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광주 최초 여성 단체장을 꿈꾸며 교육·복지·경제 분야의 정책과 여성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영남 민주당 광주시당 상임부위원장도 출마를 굳혔다. 재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의정활동 당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롯데마트 불법 재임대 문제 해결로 주목받았다.

또 지난 대선에서 광주 선대위 공동선거책위원장 및 총괄특보단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에 기여한 공로로 1급 포상을 받으며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행정가로서는 조승환 전 서구청 국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하고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2022년 서구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는 그는 당시 노인 일자리 확대, 풍암호 수질 개선, 1인 가구·어르신 돌봄 강화 등 주민밀착형 공약을 내놓았다. 서구청 공직자 중 9급 출신으로는 최초 서구청장에 도전한다.

황현택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시의원과 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구청장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후 바닥에서부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김병내, 3선 도전…'대항마' 누구

## 김용집·황경아·하상용, 민주당 경선…조국당 박기수 세확산

###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김용집 하상용 황경아

광주 남구는 현 구청장의 '3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지방의회와 시민사회 출신 입지자들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직인 김병내 청장은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3선을 준비하고 있다. '일 잘하는 청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김 청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 민원실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으로,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김 청장은 광주 최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황경아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며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황 의원은 3선 구의원을 지내며 지역 내 높은 인지도를 쌓아올린 게 강점이다. 그는 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오랜 의정 경륜을 기반으로 '세대교체'와 '섬세한 행정'을 키워드로 남구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용집 전 광주시의회 의장도 출마를 굳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에 도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재선 광주시의원을 거치며 전문성과 성실함을 겸비한 김 전 의장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포용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남구에서 오랜 정치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장은 '품격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도 출마 채비에 나선다.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그는 광주 향토 유통기업 빅마트 대표를 거쳐 광주재능기부센터 이사장, 전라도닷컴 발행인 등 사회적경제, 창업, 청년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정치권 출신이 아닌 경제 기반의 사회형 후보인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기수 조국혁신당 남구지역위원장이 준비 중이다. 박 위원장은 TBN광주교통방송 사장과 남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 남구청소년수련관 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주민들과 융화가 뛰어나고, 남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어 지역을 잘 아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역 없는 무주공산…물밑 경쟁 치열

## 김동찬·문상필·송승종 등 '표밭갈이'…신수정·안평환 등 출마 준비

### 광주 북구청장

김동찬 문상필 송승종 신수정

광주 북구는 현역 없는 '무주공산'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다수의 입지자들이 출마에 나서고 있다.

재선의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현직 시의회 의장과 행정가 등이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굳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는 풍부한 지방의원 경험과 성실한 의정활동, 그리고 특유의 유연함으로 대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으로 보기 드물게 북구의회 의장과 시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지방자치 입문 후 20년 동안 풀뿌리 지방자치를 경험하고 실천한 정치인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GGM의 산파 중 한 명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송승종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도 출마를 결심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북구에서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지방행정기관에서 40년을 근무하며 3급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다. 이 같은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북구의 도시개발·환경·복지 등 복합적 현안을 안정적으로 풀어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북구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정책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구민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 왔다. 그는 강한 추진력과 조직력을 갖춘 '일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시의회 개원 34년 만에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된 신수정 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북구의원 3선과 재선 시의원을 거치며 오랜 풀뿌리 정치 경험을 쌓은 게 강점이다. 시의원으로는 여성과 교육, 청년 등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안평환 광주시의원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초대 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를 역임할 정도로 도시재생과 주민자치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광주역 도시재생뉴딜 등 북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원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도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좌관 등 다양한 중앙정치 무대 경험으로 '도시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중앙정치과 지역정치를 아우르는 소통과 차별화된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출신인 조호권 전 시의회 의장, 설정환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 현직 박병규 맞서 입지자들 바닥 다지기

## 정무창·박수기·차승세 등 표심잡기 분주…단일화 등 '변수'

### 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 박수기 정무창 차승세

광주 광산구는 현 구청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시민사회, 행정관료 출신 등의 인사들이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먼저 현직인 박병규 구청장이 착실하게 재선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민 주도 및 혁신 행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시민을 직접 만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직통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지역 내 갈등과 현안, 각종 위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대화와 토론으로 답을 찾았다.

특히 박 청장은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의 최초 제안자로,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광주시 부시장 등 산업과 행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

차승세 노무현시민학교장도 일찌감치 광산구청장 출마를 굳히고 지역 내 왕성하게 표밭갈이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광산구청 비서실장,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을 거치며 구정·시정에서 모두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조직팀장·광주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맡으며 새정부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정무창 제9대 광주시의회 의장(전반기)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재선 시의원인 그는  의장을 맡으면서 관행적인 '쪽지 예산'과 '비주류·주류' 구분을 없애고,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토론 중심의 의회 운영을 펼쳐 왔다.

그는 또 참여자치 광산주민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다문화, 고령화, 교육·주거 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지역 이슈에 목소리를 냈으며, 광산구 내에서 꾸준히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인물로 평가 받는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기 의원은 광산구의 핵심인 수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3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과 3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정책적인 전문성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 정책을 주관해 온 현장 중심의 실물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박 의원은 2023년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단위 최대 당원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의' 광산구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풀뿌리 당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를 갖췄다.

민형배 의원실 소속 박광식 보좌관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보좌관은 전남도지사 비서관, 전남도 국회협력관, 광산구청 정무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지방 행정과 정치를 두루 섭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